

가족부양자의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 및 노인에 대한 태도

오 현 숙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이 경 미

경상대학교병원

(요약)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탈바꿈하였으며, 머지않아서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 사회로까지 변모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 이후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 현상들 중의 하나로 노인부양의 문제를 노인교육의 중요성 측면에서 접근한 조사연구였다. 과거에 비해 노인부양의 비율이 감소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비율은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이에 노인을 부양하고 살아가는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일반인 262명을 대상으로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그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는 예측한 바대로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 사이의 상관이 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을 통해서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킬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곧 노인을 부양하는 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노화과정을 이해시키는 내용들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Key words: 가족부양, 노인에 대한 태도, 노화과정의 지식]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660-751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92번지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오현숙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라며, 저자의 e-mail 주소는 nhsok@gaechuk.gsnu.ac.kr이다.

서 론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7년에는 노인인구가 481만 명으로 총 인구의 9.9%에 해당되었으며, 2018년에는 그 비율이 14.3%로 “고령 사회” 그리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변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을 나타내는 노년 부양(15-6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도 변하게 되는데, 2007년에는 생산가능 인구(15세-64세) 7.3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203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2.6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태로 변모할 것이다 (김영수, 2004; 통계청, 2007).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립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욕구 충족을 가족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노인들을 상대로 나중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거주 형태에 관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자녀와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50.0%)이 혼자서 살겠다고 응답한 비율(27.1%)이나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 살겠다고 응답한 비율(22.5%)보다 훨씬 높았으며, 노인들이 기대하는 자녀들의 부모부양에서도 응답자의 55.5%가 ‘자녀라면 다소 무리해서라도 부모를 부양해야한다.’고 한 반면, ‘자녀에게 여력이 있으면 노부모를 부양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도 21.9%에 해당되었다 (이가옥·서미경·고경환·박종돈, 19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노인이 치매환자일 경우라도 가족이 부양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장제도와 노인복지서비스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서구에서도 유사한 상황이다 (고양곤, 1997).

이와 같이 노인부양의 책임을 대부분 가족이 지면서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수용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족부양자들에게 노화과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

노화과정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

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 연구자들은 노인에 대한 지식 결여와 노화의 정보 부재는 노인에 대한 태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인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나 접촉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이나 지식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노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경희, 1995; 한정란,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는데, 그 지식과 태도간의 정적인 관계가 기대되었다. 연구결과는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 증대와 노인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두 도시지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노인을 돌보는 262명의 가족부양자들이었다. 그들은 K회사, G대학병원, J의료원, J보건소, 및 D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이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한 내담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성비는 남성 39.3%($n = 103$)와 여성 60.7%($n = 159$)이었으며, 그리고 그들 중에서 직업이 없다는 비율은 8.1%($n = 21$) 또 건강한 편이 아니라는 응답 비율은 6.9%($n = 18$)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60세 미만으로 제한했으므로 20대부터 50대까지였는데, 기혼자 비율은 87.0%($n = 228$), 또 연령층의 비율은 40대가 40.9%($n = 107$), 30대가 36.6%($n = 96$), 50대가 12.6%($n = 33$), 그리고 20대가 9.9%($n = 26$)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경제적 수준을 월평균소득으로 평가할 때 100-150만원이 8.1%($n = 21$), 150-200만원이 11.9%($n = 31$), 200-250만원이 20.0%($n = 52$), 250-300만원이 17.3%($n = 45$), 그리고 최소 300만원이 42.7%($n = 113$)이었고, 그들의 학력은 중졸 이하가 5명으로 1.9%, 고졸이 89명으로 34.0%, 그리고 대졸 이상이 168명으로 64.1%에 해당되었다. 조사대상자의 부양가족과의 관련성으로는 첫째, 과거

에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36.5%($n = 93$), 둘째, 현재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기간으로 15년 이상이 32.0%($n = 84$), 10-15년 정도가 21.3%($n = 55$), 5-10년 정도가 22.4%($n = 59$), 그리고 5년 미만이 24.3%($n = 64$)이었고, 셋째, 응답자가 부양하고 있는 노인과의 관계에서는 아들이 32.8%($n = 84$), 며느리가 34.4%($n = 94$), 딸이 19.9%($n = 51$), 사위가 4.3%($n = 11$), 그리고 기타가 8.6%($n = 22$)로 나타났다.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두 가지로 하나는 노화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지식의 평가는 박선영(2006)이 사용한 도구를 그대로 이용했는데, 이는 인지적이거나 신체적 노화와 관련된 사항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노화과정을 묻는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신체 및 생리적 영역 12문항, 심리적 영역 6문항, 및 가족이나 사회적 영역 8문항). 문항에 대한 응답 형태는 “그렇다,” “잘 모르겠다,” 또는 “아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으며, 점수에 대한 배점은 정답은 1점 그리고 오답은 0점이어서 도구에 대한 총점의 범위는 0-26점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과정에 대한 인식을 더 정확하게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임정빈(2007)의 도구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는데, 원래 40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에서 노인의 이미지 및 전망을 반영하는 4문항, 노인의 적응력이나 대인관계를 반영하는 6문항, 노인의 성격 특성을 반영하는 5문항, 그리고 노인의 지적 능력을 반영하는 2문항 등 도합 네 개 영역에서 17문항이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형태는 4점 척도이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 1, 그렇지 않다 = 2, 그렇다 = 3, 매우 그렇다 = 4), 각 영역의 비교를 위해서 영역마다 평균치를 구하여 자료를 처리했다. 곧 각 영역 평균치의 점수범위는 1-4점이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부양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로 자료 수집은 2008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졌다. 연구 목적이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조사 참여에 동의하는 300명을 임의적으로 선정한 후 그들에게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여 일정한 기일 이내에 제출해주도록 했다. 표집이 편의적으로 이루어졌기에 1주일 후에 거의 대부분의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지만, 가족 부양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거나 월평균 가계소득이 1백만 원 이하인 분들을 제외한 262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결 과

우선 노화에 대한 지식의 평가결과는 26점 만점에서 평균 13.43 ($SD = 3.67$)점으로 정답률이 약 51.7%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는 신체 및 생리적 영역의 지식은 12점 만점에서 평균 7.68($SD = 2.01$)점으로 정답률이 64.0%, 심리적 영역의 지식은 6점 만점에서 평균 2.54 ($SD = 1.52$)점으로 정답률이 42.3%, 그리고 가족 및 사회적 영역의 지식은 8점 만점에서 평균 3.21($SD = 1.61$)점으로 정답률이 40.1% 정도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 평가결과로는 17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서 2.66($SD = .25$)점이었으며, 이들을 하위 영역으로 살펴볼 때 노인의 이미지 및 전망은 평균 3.01($SD = .43$)점, 노인의 적응력이나 대인관계는 평균 2.52($SD = .44$)점, 노인의 성격 특성은 평균 2.50 ($SD = .58$)점, 그리고 노인의 지적능력은 평균 2.11($SD = .56$)점이었다. 마지막으로 노화에 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도구들의 하위영역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았다. 전반적으로 노화에 대한 지식은 노인에 대한 태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신체 및 생리적 영역 그리고 심리적 영역 부분에서 그와 같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노화에 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N=262)

태도 지식	전망과 이미지	지적 능력	성격 특성	적응 및 대인관계
신체, 생리적 영역	.191**	.109	.205**	.154*
심리적 영역	.132*	.187**	.157*	.211**
가족, 사회적 영역	.118	.180**	.059	.117

* $p < .05$ ** $p < .01$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 및 노인에 대한 태도를 평가한 조사연구였다. 여러 연구들에서 노화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역시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사람이더라도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습득시킬 경우 태도가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류희선, 2004; 한정란, 2003; Hope, 1994).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절대다수(약 64%)가 대학을 졸업한 학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 정답률이 겨우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다. 이는 아마도 대학 졸업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노년학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과 관련이 높지 않을까 하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학생들 상대로 노년학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후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비하여 수강한 후의 태도가 훨씬 더 긍정적이었다 (이영숙·박경란, 2002).

곧 노인을 부양하는 자들이 겪는 노인부양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도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었을 때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

노화과정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

적으로 변화하는 물론 스트레스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일부 연구에서는 노인과 대화를 많이 했던 노인일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임을 보여주었는데 (서병숙 · 김수현, 1999), 이는 노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편견이 감소되고 또 경험에 의한 지식이 증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자들은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들에게 실시되는 교육프로그램에는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키고 또 노인과 자주 접촉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전략 등이 포함되어야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고양곤 (1997). 치매노인의 부양 및 가족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 3, 31-60.
- 김영수 (2004).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대전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희선 (2004). *대학생들의 노화에 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희 (1995).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복지사의 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2006). *노인 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노인 간호 교육요구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 · 김수현 (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 19 (2), 97-111.
- 이가옥 · 서미경, · 고경환 · 박종돈 (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 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숙 · 박경란 (2002). 노년학 교육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 (3), 29-41.
- 임정빈 (2007).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및 태도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7). *2007 고령자통계*. 서울: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2004년도 전국 노인 생활 실태 및 복지*

요구 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한정란 (2000).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노화에 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연세교육연구*, 13 (1), 191-206.

한정란(2003).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23 (4), 181-194.

Hope, K. W.(1994). Nurse's attitudes toward older people: A comparison between nurse working in acute medical and acute care of elderly patients sett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 605-612.

Caregivers' knowledge on aging and
attitudes toward the aged

Hyun-Sook Oh* Gyeong Mi Lee**

*Department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 Hospita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660-751

Many studies have shown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n aging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people so far. As expected,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m were shown from the 262 respondents in the present study who aged from the early 20s to the late 50s and were caregiving their elderly parents or relatives. Thus, the findings were suggestive that any educational or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caregivers should include as well as emphasize upon the knowledge on aging because some caregivers might show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people and aging.

(논문접수일: 2008년 9월 25일)

(수정논문접수일: 2008년 10월 17일)

(논문게재승인일: 2008년 11월 3일)